

# 朝鮮佛敎의 三時代

李 能 和

## 一、朝鮮佛敎의 過去時代

朝鮮佛敎輸入以來를 全盛時代 衰退時代의 二期에 區別하여 簡單히 說明하면 全盛時代는 全盛의 原因이 있고 衰退時代는 衰退의 原因이 있다. 然則 麗濟三國의 中葉以後는 高麗末季에 至하기까지의 上下千年으로 朝鮮佛敎의 全盛時代가 現存이다. 朝鮮文化史에 大光彩를 放한 第一은 求法高僧의 努力을 言할지니 此는 卽高句麗의 義湘和尚은 北齊에 入하여 佛敎의 由緒를 問學하였스며 明大師·實法師·印法師·慧灌·道登等 諸和尚은 或은 中國에 入하여 宗乘을 學得하고 或은 日本에 往하여 佛法을 傳授하였고 百濟의 謙益和尚은 印度에 入하여 戒律을 學하여 東國에 歸還하여 律乘을 道傳하였고 新羅佛敎發展初期에 在하여는 覺德·智明·圓光·圓仁等 諸和尚으로 爲始하여 中國에 求法하여 東國을 佛化시켰으므로 有名한은 그 芳名이 歷史上에 留傳되니 一般이 共知하는 如 至今까지 法派의 系統을 可考한 者는 卽 通度寺 戒壇에서 慈藏和尚의 律宗의 典型을 見하며 海印寺 藏經院에서 義相大師華嚴派의 系統을 知하며 道義·無染·洪陟·惠哲·眞鑑·梵日等 諸國師는 曹溪宗의 心印을 得來하여 海東山門에 九派를 并傳하였스며 高麗의 大覺國師는 宋朝에 留學하여 華嚴·天台 諸宗을 中興시켰을 實인 아니니 佛敎書籍을 盡力蒐集한 結果로 高麗版大藏經이 雕造되였스며 麗末의 太古國師·懶翁王師·兩大和尚은 臨濟의 心法을 持傳하여 朝鮮禪宗의 曹溪派를 繼하여 中興祖로 되였스니 已上의 諸師는 朝鮮佛敎를 全盛케 한 主人公이다. 그러면 그 內에서 時勢를 造하였지만 一方面으로 觀察하면 時勢가 그 內을 造하였다 하여도 可하다. 惟 그러하면 佛敎全盛時代에는 佛敎를 對敵한 宗敎가 無하고 佛敎의 獨舞臺이 었었다. 道敎가 있었지만 此는 一種長生術으로 山人隱士

에 屬하고 一般의 宗敎로는 되지 못하였었다. 儒敎가 있었지만 此는 政治又是 文學邊에 位置되고 一般의 宗敎로는 되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오직 佛法은 一般의 宗敎로 되였는바 故으로 偉大한 人物도 그 中에서 나오니 順利한 時勢도 그 中에서 얻은 것이다.

朝鮮佛敎衰退原因에 對하여는 一般人士는 이리 稱宣傳한다 高麗末季에 僧侶의 非行이 極度에 達하여 社會에 弊害를 惹키므로 國家에서 此를 抑壓하기 爲문에 佛敎가 衰退하였다 한다. 그러나 余는 그 中을 信치 아니한다. 非行僧侶로 말하면 何時何代를 勿論하고 업적 아니 할 것이 아니다. 羅麗佛敎全盛時代에도 있겠슬 것이다. 然則 非行僧侶를 佛敎衰退의 原因으로 看做할 수 없다. 余는 佛敎衰退의 原因은 非行僧侶가 아니요 卽佛敎를 對抗하는 儒敎가 그것이라 하겠다. 高麗末季에 至하여 程朱學說이 入國한 이래 비록 오직 儒敎者流는 佛敎에 對하여 白眼으로 視하여 盛히 此를 排斥하기 爲始作하였었다. 僧侶의 非行을 列舉하여 社會에 宣傳도 하며 君上에 進諫도 하여 此를 排斥佛敎의 一 個 資料로 用하였었다 그러나 其實은 此와 相反으로 儒者의 攻擊을 受한 非行僧은 舉皆 卓行著名의 僧師이 었었다. 茲에 그 證據를 말하면

第一은 李朝世宗王時의 行平이라 하는 名僧은 世宗의 尊敬을 受하고 宗親貴戚이 眞佛로 信奉하였는대 當時 儒者等의 攻擊에 對하여 還山하고 말았다.

【世宗實錄】二十一年己未夏四月癸巳。成均生員李永山等六百四十八人上疏……今者。有僧行乎。住止與天。不鑑昔日之轍。自謂懶翁之儔。惑世誣民。思易風俗。民之景慕。無異懶翁。雖以宗親貴戚。不惜名位之重。躬詣桑門。恭行弟子之禮。臣等每見如是。扼腕厲心者有日矣。今又竊聞。以珠玉錦繡。造成法衣而拂子禪棒。飾用金銀。又以金銀。鑄成食鉢匙筋念珠。以賜行乎。不識此言誠然乎哉。臣等竊寐傷歎。不覺揮涕。以爲方今民之於佛。方信而或疑者。惟以聖上在上。以吾道爲道。而不以佛道爲道故也。今行乎所賜。雖於聖心。固無所管。然僧徒之自誇者。與愚民之方信者。豈不曰聖上猶然。况其他乎。於是。上自宗室。下至黎庶。瞻奉施捨。景仰歸依。如恐不及。人人欲爲弟子。家家願被因果。其勢益張。罔有紀極。

是乃教孫升木。決塞流注也。爲普道計者。寧不重爲寒心哉。……伏願殿下。下令敎司。斷行乎一僧頭。永絕邪妄之根。則國家幸甚。云云

第二高僧信眉。成宗時。禮曹判書。呂終仕。社金守溫(乖匪)의胞兄。호로學德이高明하다。世宗朝。早의禮曹受命。立文宗王時。呼至하다。는王師。呼擬하다。是한社者의法職을賜與하다。隆崇하다。待遇하다。儒臣等의攻擊上疏가逐日不絕하다。終乃尊者의職號를削減하다。

【世宗實錄】三十二年庚午春正月壬寅。上疾瘳。精勤猶不能。仍大作佛事。召僧信眉。迎入寢內說法。待以尊禮。

【文宗實錄】即位庚午七月戊午。司憲府上疏曰。本月初六日。批僧信眉爲禪教都摠攝。密傳正法。悲智雙運。祐國利世。圓融無礙。慧覺尊者。不勝驚駭。略陳警說。瀆冒天威。尙未得諱。掌令臣河緯地。特被賜見。聖諭諄切。臣等亦得備審聖意。然不能無惑。又瀆天聰。聖諭以爲予未知是事之爲非。臣等尤不能解惑。披瀝肝膽至再三而不自已也。……今殿下非但不斥邪說。反尊崇奸僧。加以美號。……猶且堅拒衆言。至謂不知其非。臣等所以不能解惑者也。夫大姦若直。大貪若廉。使人不知其爲姦貪者是眞姦貪也。姦僧信眉。芒鞋葦笠。行必徒步。低聲歛容。或夜不眠。飾詐取信。而當先王晏駕之初。大小奔走。雖至宗親大臣之老病者。皆自下馬牲。步就外庭。而是僧晏然騎馬。排突朝士。直入闕門。見之者孰不痛憤哉。非特此也。與之不受。所得輒施。若爲廉簡無欲者。……舉世皆知其姦貪。獨殿下信其言語容貌而不覺其詐。反尊崇之。而示於世。此信眉所以爲眞姦貪也。……夫崇以美號者。必有可崇之實然後可也。……况以人主而加於奸僧可乎。○己未。司憲府司憲李承孫執義魚孝瞻掌令申叔舟河緯地持平趙安孝等。俱伏闕啓臣等請削信眉稱號。累瀆不已。尙未蒙允。昨日封章以進。上引見緯地曰。除尊者二字何如。爾退與同僚更議以聞。臣等聞命。不勝喜幸。請并削餘號。無己則判禪教宗事國一都大禪師。乃通行職號。以此授之可矣。上曰古者僧職無過此者亦多。國一都大禪師與尊者。同是無妨之號。以無妨之事。改己下之命何如。

然尊者二字。予更商量。其餘號字。斷不可削也。……予欲改尊者二字云云

第三是明宗時의禪僧普雨。是宗梁의明眼을가지고文學의長技를有하다。朝野人士가交遊歸依를다로하다。當時儒士等은此를疾視하다。攻擊의毒筆을쏟어喧嘩不已하다。

【明宗實錄】六年辛亥春正月庚午。上御朝講。特遣官姜顯曰。臣聞僧人普雨奸詐不測之人。粗解經文。交遊文士。都爲其。自稱曰佛。非徒愚民惑信。鄭萬鍾。爲成鏡監司。亦惑於雨。常置諸官舍。尊奉之事。無所不至。咸與實普雨發跡之地。災變適出是地。豈非其故也。今勅雨。則儒生不招而自來。天變不憂而自消矣。

五月傳曰。兩宗其廢已久。凡事無文書可考。該曹亦不應詳定。一應禮親。使兩宗自察事。○特命以普雨爲判禪宗事都大禪師。奉恩寺住持。守眞爲判教宗事都大禪師。先寺住持。○傳曰。判禪宗事普雨判教宗事守眞。肅拜于光化門外。都人老少。盆集爭觀。

後栗谷李珣論妖僧普雨疏曰。今茲普雨之事。舉國同情。欲燉其肉。以至國子抗疏。兩司交章。玉堂進劄累日不已。而天聽遂遠。一國臣民。罔不駭然自失。皆曰。殿下不信舉國之公議而護一妖僧。臣竊伏痛。以殿下之明聖。乃因普雨而受此名也。……殿下既不能快從公論。亟施天刑。則何不寬逐遐裔。以示與衆同棄之意乎云云

이와가치李朝初葉부러明宗朝에至하기까지는儒佛敵對의狀態에在하다。고明宗以後는李朝終局까지永遠히我退하다。孤峰絶頂에서殘喘을僅保할안이없스니此는儒臣等의政權으로壓迫함이그原因이다

### 二、朝鮮佛敎의過渡時代

四百年來京城以外의逐客이되얏은朝鮮僧侶는甲午年에至하다。비로써解禁의令下에自由로都城內出入을하게되얏다。於是에는有志僧侶는모다都下에雲集하다。時乎時乎를謳歌하던佛敎發展에對한諸般施設을다하다。보았다

佛敎第三十一號

第一着으로前韓光武六年頃에管理署라하는官廳이佛敎의行政을主宰하였다此時에京城東大門外昌信公立普通學校의前身인元興寺를剝立하여此處大光山國內首寺라하여稱號하여左右敎正各一人·大禪議及上講議各一人·理務五人·都攝理一人을置하고 奉恩奉先龍珠麻谷法住松廣金山海印通度桐華月精檢帖釋王歸州普賢神光等十六寺를中本山道內首寺라하여敎正副敎正禪議講議各一人을置하고道內各寺刹에는住職各一人을置하였으니越二年甲辰에管理署及大法山の制度는同時廢止되었다

隆熙四年에至하여韓龍雲和尙이一般僧侶에帶妻를明許하여且當局에獻議하였다此는朝敎佛敎界의思想變遷에一班을窺知키足하며今日僧侶의帶妻를公許하는前提라하게다是年에諸山僧侶의共謀協力으로京城北部磚洞(今壽松洞)에覺泉寺라하는布敎堂을建設하고基督敎式을模倣하여每日臘日마다說敎講演을行하였다

戊申年에元興寺內에置하였는佛敎研究會를設하여圓宗宗務院이라稱하고李晦光和尚을宗正으로推戴하여二資格을가지고東京에往하여曹洞宗과聯合盟約七個條를締結하였다此에對하여陳震應朴漢永韓龍雲金鍾來諸氏가南中에서蹶起하여反對運動을行하였다 그 때의主張은朝鮮佛敎는元來臨濟宗인데만일曹洞宗과聯合을한다하면是는改宗易祖의行爲라하여圓宗宗務院并其條約을否認하는同時에臨濟宗을別立하여宗務院을順天松廣寺에置하였다가後에便宜上臨濟宗臨時宗務院을東萊梵魚寺에移設하였다然則圓宗宗務院이나臨濟宗宗務院이나 둘다私設이오固定은아니엇었다그러나臨濟宗의稱號는朝鮮佛敎의精神을不失하여歷史的觀念을喚起하여宗派가부엇던지모르고잇는朝鮮僧侶의昏夢을覺醒시킨點에在하여비로되成事는못되엇을지라도美譽아니라할수없다

明治四十四年六月三日에制令第七號로寺刹令이頒布되고同年七月八日에寺刹令施行規則八條가頒布되는同時에朝鮮寺刹을三大本山(今大德寺·大德寺·大德寺)으로하고住持一人을各置하여聖年爲始하여三十本寺가各其本末寺法을制定하여朝鮮總督의認可를受하였는대李朝舊慣에依하여모다禪敎兩宗이라稱하였다

大正四年二月二十五日에朝鮮寺刹三十本山聯合事務所를覺泉寺內에設하고委員長一人을置하고佛敎의行政을此聯合制規에依하여하였다大正五年에三十本山の聯合出資로佛敎中央學林을京城府崇一洞舊關廟跡에設立하고朴漢永和尙이敎鞭을執하여聽俊僧侶를敎養하였다此는朝鮮佛敎發展에對하여第一美譽로一般의認定되는바인대後의變遷에伴하여朝鮮寺刹三十本山聯合制度를變하여朝鮮佛敎中央敎務院으로하고敎務院

內에異議分派가生하여總務院을別設하고機貳各立한結果로佛敎中央學林은自然히廢止되고私立東光學校를經營하고總務院에서는私立普成高等普通學校를天道敎로부여引受하여此를經營하였는대兩院의軋轢이和合에歸하는同時에六十萬圓의財團法人을成立하여東光學校를普成學校에併合하여經營하게되고舊中央學林基址에新校舍를建築하여는佛敎專門學校도經營을計畫하고잇다

### 三 朝鮮佛敎의未來時代

朝鮮佛敎過去時代의歷史的知識과過渡時代의經驗的抱負를가지고未來時代의發展을計圖함에對하여는余는二前途의有望함을確信한다例그러나第一時勢와人物과가相伴並進하는것이佛道란宗敎가可導함이스나원來의二理諦가深奧하여諸敎의佛敎라謂할만한대現今歐洲에서佛敎研究가不絶하여將且世界的宗敎로되아가는徵候가보인다朝鮮은本來佛敎國으로久遠한歷史를가졌는대이러이때를當하여過去時代의宗敎僧의往轍을踏襲할人物이乘時輩出할時機가되었다己往東京의佛敎大學의出身者도多大하거나乃至歐洲及印度留學者가籍出하여哲學博士學位까지어디朝鮮社會에光彩를放하며將且復設된佛敎專門學校는人材養成의植權가되어잇는듯한人物이産出되는지모른다現今敎門에在하여는朴漢永陳震應等師의熱心傳道를보며禪門에在하여는白龍城方峯若白鶴鳴諸師가宗乘을舉揚할을보이니余는朝鮮佛敎가將來有望함을斷言키에踴躍치안는다一般世人은朝鮮佛敎가墮落하였다批評한다그것은皮相的觀察에不過하고참으로山門의清規을 지키고工課에不怠한實地的內容을모르는사이다去年冬間에余는全羅南道長城郡에在한禪敎兩宗大本山白羊寺를巡禮하여본일이잇다當寺의清衆은住持宋曼庵和尚의導率下에在하여和合一致되어共同心力으로一一大伽藍法堂寮舍其他을一新建築하여노고그清規를위함에는朝夕禮佛·一堂會食等만아니하며특小沙彌일지라도法衣를입지안코는朝夕供養에參與을不許하며工課를함에는晝夜參禪의禪風과四敎大敎의講規를嚴格으로行함을보고余는心中에實地所見이表而所聞과相異함을느꼈다그리고朝鮮各寺가이와가毛風規를지키는것을알겠는佛敎의主人인朝鮮僧侶의現下狀態는上述와如하니이것으로보아佛敎前途의發展되야가는것을確信한다是는一般俗人의佛敎에對한觀念如何를말하면李朝時代의佛敎壓迫하든餘習이일마음은存在한此時에僧行을向上시키고佛敎를發展시키는것은그責任이佛敎當局者諸氏에在하니아모조조佛師諸氏의努力前進할을바라는바이다

佛敎第三十一號